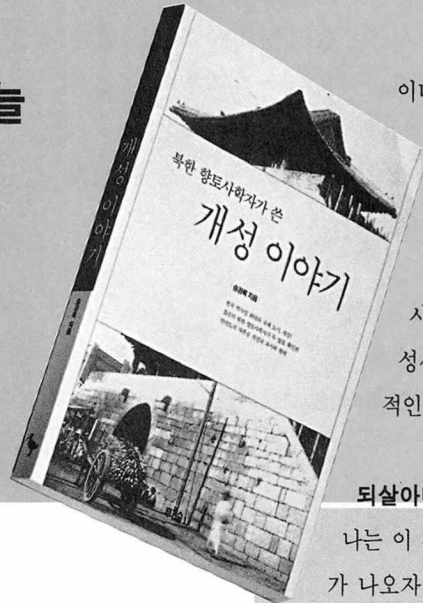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의 어제와 오늘

송경록의 《개성 이야기》를 읽고

김우중 | 문학평론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만월대 이야기가 나오자 아주 책을 덮고 중학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해질녘에 만월대의 무너진 축대 도처에 누워서 저녁에만 피는 달맞이꽃의 향기에 취해 있던 생각이 났다. 그 무렵에는 내게 사랑의 편지를 책갈피에 넣어서 전해준 아가씨가 있었지만 그 후 그녀는 임진강가로 이사를 가버렸다.”



푸른숲/A5신/280면/9800원

송경록의 《개성 이야기》(푸른숲)를 읽다 말고 나는 몇차례 눈을 감곤 했다. 반세기 동안 꿈에서만 만나던 곳들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1952년부터 개성에서 살았다. 그는 송도대학을 마치고 교원생활을 하며 주로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다. 그가 이 책을 쓴 것은 이미 일흔을 바라보며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최근의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전쟁 전에는 ‘남강원도’(분단 이후 남한의 영토가 된 강원도 지역을 일컫는 말)에 살았으니까, 그가 직접 보고 생생하게 증언한 개성 이야기는 50년대 이후 개성이 북한땅이 되고부터다.

개성인의 끈질긴 생명력

그런데 나는 50년 5월에 개성의 송도중학교를 졸업했고 전쟁통에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버렸으니 그 후의 개성은 모른다. 선죽동에 사시던 고모님이나 진골에 사시던 이모님이나 나갯줄의 외삼촌, 그 밖에도 많은 친척들이 어찌 됐는지 모른다. 그 후의 그들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남아 있던 개성이 어떻게 변했으며 조선조나 일제시대에도 그랬듯이 개성사람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어떻게 발휘해 나갔는지 이 책은 전해주고 있다. 이 책은 1950년 전쟁 때부터 딱 끊긴 내 고향에 대한 추억의 필름을, 비록 내가 빠져 버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어 준 것

이다.

물론 이 책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은이는 고려의 수도로서 찬란했던 개성의 역사와 함께 이성계 이후 학살과 약탈과 신분적 억압의 불운을 극복해 나가며 상업으로 다시 일어난 개성인, 그리고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해방 후의 변모한 모습들을 훌륭히 그려내고 있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의 설화와 전설, 그리고 황진이·한석봉·박지원 등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 중에서 나는 다른 독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역시 6·25 이후의 이야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남한에 사는 우리로서는 어떤 책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책에 보면, 전쟁시의 미군 폭격기는 교회를 비롯해서 내 모교인 송도중학교도 폭격으로 허물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원전학교, 공정학교, 상업학교, 개성중학교 등이 모두 폭격을 당했다. 그런데도 개성은 이 무렵부터 인구가 갑자기 많아졌다. 멀리 북쪽에서 남하하던 피난민들이 모두 여기서 길이 막혀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 1년만에 시작된 정전회담이 여기서 벌어지며 다른 고장보다 살기 좋은 피난지가 된 것이다. 정전회담이 열리기 시작하자 이곳은 폭격이 없는 비무장지대가 됐다. 미국의 대표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내 모교 운동장에 내렸던 모양

이다. 이때부터 어디서나 집집마다 쪽다기(수직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 집집마다 주부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개성시를 경공업도시로 만든 대표적인 원인이 된다.

되살아나는 중학시절의 추억담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만월대 이야기가 나오자 아주 책을 덮고 중학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해질녘에 만월대의 무너진 축대 도처에 누워서 저녁에만 피는 달맞이꽃의 향기에 취해 있던 생각이 났다. 그 무렵에는 내게 사랑의 편지를 책갈피에 넣어서 전해준 아가씨가 있었지만 그 후 그녀는 임진강가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한양으로 가기 전에 머물던 운학동은 내게는 몹시 그리운 곳이다. 그곳 숲에서 본 딱따구리 관찰기는 내가 지금까지 써온 글 중에서 활자화된 최초의 것이다.

지은이는 또 나의 송도중학과 명덕여중이 서로 친했던 일도 되새겨주고 있다. 내가 있던 미술반도 서로 왕래가 있었는데, 내가 만든 조각도 명덕여중에 가 있었다.

언젠가는 지금의 오승우 화백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윤치호(전 연희전문학교장, 총독부 참의원 의원)의 손녀 윤○○가 누드 모델이 돼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여중생인 계집애가 같은 나이 또래의 남학생 앞에서 발가벗겠다니 너무도 당돌했다. ‘그럴 수가 있나? 내게 그랬었다면’ 하고 엉뚱한 생각까지 하면서도 나는 너무도 진보적인 그녀의 사상에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의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인이 바로 그녀가 아닐까? 윤치호의 손녀라는 윤치희가 바로 그녀라면 누구보다도 진보적임을 자부했던 그녀는 그때 이미 공산주의에 깊이 빠져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